

제8기 물류관리사 배출

물류협, 통신강좌 개설·실무과정 보완

(사)한국물류관리협회(회장 안태호)는 구랍 8일 총 31일 1백39시간의 물류관리사 교육을 받은 제8기 물류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했다.

전문 물류인 양성을 위해 물류관련 장기교육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물류관리사 강좌는 8기까지 총 150명을 배출하였다.

지금까지 배출된 물류관리사들은 국내 최일선 물류현장에서 기업물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물류관리협회는 지방 권역의 물류인 양성을 위해 올해에 통신강좌를 개설하여 종래의 이론 중심에서 실무중심으로 과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5월 읍셋 인쇄기 수입금지 품목 제외 요청
인쇄연합회, 국내생산업체 업계 부담 커

인쇄연합회(회장 박충일)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고시돼 수입이 금지돼 있는 소형 5절 읍셋 인쇄기를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상공자원부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읍셋인쇄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5절 양면인쇄기를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 비싼 4절기 인쇄기를 대체 수입하기 때문에 업계가 시설자금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면기와 양면기의 생산성을 보면 8시간 기준 단면기는 8만통을 인쇄할 수 있으나 양면기는 16만통을 인쇄, 생산능력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같은 물량을 인쇄할 경우 양면기 1대 사용시 단면기는 2대, 설치면적도 두 배 이상 소요되고 기능인력도 두 배가 필요해 중소인쇄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단면 5절인쇄기계는 현행대로 수입금지하고 양면 인쇄가 되는 소형 5절 읍셋인쇄기를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시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요청했다.

한편 수입다변화정책은 지난 91년부터 국산인쇄기계의 개발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나 업계의 현실이 무시된 채 운영되고 있어 업계에서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공인디자인사 현판식

자체 개발 정책자금 지원

구랍 1일 '212디자인' 등 총8개 공인디자인전문회사가 현판식을 가져 우리나라 산업디자인 수준의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상공자원부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산업디자인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수요창출과 시장개척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자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9조에 의거 공인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를 적극 육성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전문회사의 신고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개정고시하였고, 신고된 전문회사는 자체 디자인 개발시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이번 전문회사 현판식을 계기로 전문회사에 대한 융자·세제지원과 전문회사협회 구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여 디자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디자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소기업지도 대폭 확대

공진청, 기술력 확대 방안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공진청은 구랍 6일 '94중소기업 경영 및 생산현장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대상업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기술지도 대상 분야는 생산현장 기반 기술, 기계류부품·소재, 경영관리 및 품질경영 분야와 공장혁신을 위한 공정기술 등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진청은 공업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술지도 40개 기관을 총동원,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선정된 지도업체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도요원을 생산현장에 파견, 지도를 하게 되는데 지도기간은 20일 정도다.

기술지도 비용은 무료이며 제품의 시험 분석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품질경영 등급사정 공장심사가 생략되는 등 지도공장에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자동화센터 기공식

생산성본부, 시화에

생산성본부는 구랍 1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화공단에 대지 9천평 연면적 3천7백70평 규모의 자동화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자동화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인문계 고졸자 및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1백40억원을 투자, 96년 3월 자동화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업 컨소시엄 주식공모

포장협회, 선경과 사업착수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회장 한용교)는 폐기물처리업 컨소시엄에 대한 주식공모에 들어갔다.

한국포장협회는 최근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폐기물 공동처리사업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경그룹과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업 주식공모를 실시하는 포장협회는 이 사업이 실시될 경우 포장폐기물은 물론 일반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식공모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최저 신청액은 5천원짜리 1천주로 회원사 가운데 5억 원미만으로 접수한다.

이 사업이 실시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운반비를 포함하여 톤당 30만원으로 예상되며 주식 참여사에게는 일정한 혜택도 주어진다.

포장협회는 주식공모가 끝난후 사업에 착수, 시화공단이나 남동공단 등에 부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가동은 95년말이나 96년초로 예상된다.

국내외 기계류전시회 참가 유도

기공, 홍보관 개설 등 수요창출

94국제자동화기기전 이 오는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열린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회장 김선홍)가 기계류 수요창출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각 전시장별

로 국내 기계류 홍보관을 개설하고 행사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업체의 카탈로그 홍보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거래알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공업진흥회는 이와함께 국산 기계류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국내 제직업체의 참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계공업진흥회가 참가를 계획하고 있는 해외 전시회는 ▲중국 친진 식품기계 및 포장기계전(8.19~22) ▲중국 심천 국제기계 및 원료전람회(10.25~29) ▲베트남 하노이 국제박람회(10.20~26) ▲중국 광주 화남 국제기계전람회(6.6~9) ▲중국 북경 국제기계전람회(7.8~12) ▲중국 상해 금속가공기계전람회(12.1~6)등이다.

패키지디자인협회 정기총회

사단법인화 추진 적극 검토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회장 임종웅)는 구랍 20일 오후 7시 쌍용 스카이라운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원 9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94년 사업계획, 협회의 사단법인화 추진문제 등이 논의됐다.

협회는 이번에 신입회원 30여명을 새로 받아 모두 1백58명으로 회원이 늘어났으며 "앞으로 협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알찬 협회로 만들 것"이라고 임회장은 밝혔다.

한편 이번에 나온 협회보의 주요 내용을 보면 ▲APD 지상중계 ▲국내 포장디자인의 현주소를 분석한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제지업계 물류센터 설립 붐

한솔·신호 등 경쟁적 확충

인쇄용지 업체들이 고객 서비스강화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물류센터 확충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이남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 제지공장에서 소비지인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해서는 대소비지인 인근에 창고기능을 겸한 물류센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의 경우 현재 전주공장과 장항공장에 각각 1만2천평, 8천평 규모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인천에 1천평의 임차창고와 서울 용산역 사내에 3천5백평, 대전인근의 반야월 역사에 5백평 등 전국에 2만5천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성북역사에 부지 2천5백평, 부산지역에 3층짜리 연건평 8천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